

# \*\* 교과과정의 특징에 기초한 덴마크의 가구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anish Furniture Design Education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s in Danish institutions

김진우\* / Kim, Jin-Woo

## Abstract

When initially comparing Denmark with Korea, it would appear that the two have little in common. However, upon further investigation, one would find they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both small Countries located outside of central continents without an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Each has also shown displayed its own successful design to the world. The unique qualities of Danish designs have both, in turn, influenced other Countries' designs, thus having a ripple effect worldwide in the design area. One may concluded that the schools educating these designers have played a role in Danish unique design success. This thesis investigates and details curriculums and goals of three furniture design departments of Universities in Denmark and, is useful for furniture department's in Korean schools who wish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Danish schools have achieved their success to date.

키워드 : 덴마크, 가구 디자인, 교과과정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가구 산업은 경제 위기의 한파를 맞아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름대로의 자성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재기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국내 가구 회사내의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작업인이라기 보다는 주로 타회사의 제품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모방하거나 제품의 일부를 수정하는 기술자에 불과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우리의 가구 회사들도 그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구 회사들의 사례를 청사진으로 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으리라고 본다.

한편, 가구 디자인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왔다. 과거의 디자인 교육이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편중된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가구 디자인 관련학과에서 산업디자인으로서의 가구를 인식하고 교육하는 교과과정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 졸업작품전을 산학협동으로 연결하여 추후 가구 회사에 입사하여 양산가구 제작이라는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논자는 덴마크의 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면서 덴마크의 가구 회사와 가구 디자인 관련대학과의 교류를 가져왔다. 대학에서는 학기 중이나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구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구 회사는 학생들의 디자인을 양산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실 덴마크는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볼 때 우리와는 아주 멀게 느껴지는 나라이다. 하지만 국토 면적이 작고 지리적으로 대륙의 변방에 위치하며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등의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들이 가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을 통해 부딪혔을 문제점 역시 우리의 그것과 많은 부분이 흡사하리라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가구 디자인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의 분석을 통해 덴마크인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이 논문이 한국의 가구 디자인 교과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되는 데에 있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DIS Program 한국 코디네이터

\*\* 본 연구는 교육부 향토 가구산업 거점대학 지원으로 경민대학이 주관한 연구중의 일부임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덴마크의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들은 가구회사를 비롯한 전문 디자이너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덴마크에서 양산되고 있는 가구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덴마크 가구 디자인의 특징을 결정하는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는 작업을 선행하고자 하며 이어서 덴마크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덴마크 왕립 대학(Royale Academy of fine arts), 덴마크 디자인 학교(Denmark design school), 그리고 Denmark International Study program (이후 DiS라 칭함)을 중심으로 가구 디자인 교육의 특성과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자는 디자인과 관련된 덴마크의 사회와 문화적인 특성을 자세히 소개한 논문집인 Scandinavia journal of design history와 위 교육기관과의 연구자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각 학교에서 현재 가구 디자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혹은 재학생인 학생과의 인터뷰 및 학교 브로슈어와 웹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 2. 덴마크의 사회적 배경과 가구의 특징

### 2.1. 사회적 배경

덴마크는 서울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소수 민족이라는 점, 지리적으로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기후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등이 국제화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는 물론 3-4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점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 세계수준의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구 회사인 프리쯔 한센(Fritz Hansen)의 국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 폴 옌슨(Poul M. Jensen)씨는 일년에 125일 이상을 홀로 해외에서 보낸다. 가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가 디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영어를 비롯한 4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함은 물론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함은 그가 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거래처와의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결정은 제 3자의 의견을 물을 필요 없이 자신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적당한 권한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sup>1)</sup>

1) 폴 옌슨씨는 영업을 하는 중에 동양인들이 5-6명씩 그룹을 지어 출장을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으며 그들은 한가지 사실을 결정하기 위해 수 차례의 회의를 거치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덴마크 격언 중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것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가구 디자이너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단 최소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의 제작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가구 회사를 찾아 나서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구가 제작된 후에는 자신이 영업사원이 되어 직접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를 들고 나가 팔 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 가능성이 희박한 디자인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목적을 상실한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수만으로는 이익창출이 어려운 인구 5백만의 덴마크인들에게 세계시장으로 진출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럽을 대표하는 가구 전시인 Scandinavia Furniture Fair 등의 유치를 지원하는 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2.2. 덴마크 가구의 특징

덴마크인에게 가구의 의미는 각별하다. 덴마크의 본토가 북위 57도에서 54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후는 전형적인 북유럽의 특성을 지닌다. 길어야 3-4주에 해당하는 짧은 여름동안만 긴 태양을 즐길 수 있을 뿐 나머지 11개월은 어둡고 짧은 일조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온 대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촛불을 밝히고 와인을 마시며 침대에 들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눈다. 손님을 접대할 때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정 가까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들의 문화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집(가정)과 가구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좋은 기후조건을 가져 육와활동이 많은 중남부 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가구와 함께 주방용품이나 실버웨어 등이 발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덴마크 가구의 특징을 형태, 재료, 구조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형태의 특징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 덴마크 가구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하므로 십 년을 하루처럼 보아도 부담이 없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둘째는 수출을 겨냥한 디자인이어야 함으로 독특한 외형을 가진 디자인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이 다양한 문화권 내의 디자인과 함께 무리 없이 놓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 (2) 재료의 특징

덴마크의 가구를 재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로 나무를 사

용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훨씬 신중하게 되며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상황 극복이 빠르다는 것이다.

용하고있고 그 중에서도 국목(國木)인 자작나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려는 그들의 노력은 각별하여 수도 코펜하겐에 보행자의 도로를 늘려가기 위한 도시계획이 50년이 넘도록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은 195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대신 자전거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일인당 하루 물 소비량을 표시하는 대형 유리판을 시내 한복판에 전시하여 서서히 줄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가구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때 플라스틱 등 제 3의 재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나 그들은 결국 나무를 선택하였다. 재료의 사용은 제품을 만듦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용도가 다하여 폐기처분이 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결론 때문이었다. 나무는 사용이 다하여 태워져 영원히 사라질 때에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대신 가능한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a b  
<그림 3>의자의 구조를 학습하는 교과과정 중의 하나인 Body Support

a,b:학생 작품, 구조 자체가 의자의 형태가 되고 있다.

### 3. 가구 디자인 교육의 특징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덴마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교육 목표는 바로 독립성(Independence and self-respect)이다. 아래 예로 제시된 3개의 대학의 가구 디자인 수업의 특징에서도 이러한 교육 목표가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로 활동하며 교수와 대학은 보조와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 3.1. 덴마크 왕립대학(Royale Danish Academy of Fine Arts)

명실상부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덴마크 최고의 디자인 교육기관이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나라의 미대 입시와 비슷한 실기시험을 거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많은 학생들이 두 번째의 방법을 통해 입학하는데 그들이 작성하여야 할 지원서의 내용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지원서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시점까지 학생이 경험한 모든 일과 이 학교에 들어오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백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자기소개서와 흡사하다. 일단 학교에서는 디자이너로서의 경험보다는 인생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던가 오지로 여행을 하였다던가 하는 경험을 중요한 입학요건으로 생각한다. 디자이너로서가 아닌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건축 및 디자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한 경력 또한 중요하다. 학생이 어떠한 영역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들은 학생의 나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나이가 너무 어린(대개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내외)학생들은 위에 열거한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교육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평가하며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대개 30살 이상)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에 능했다고 평가한다. 적합한 나이와 그에 합당한 인생 경험이 있다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이 학교의 신입생 평균연령은 24세이다. 다른 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위를 받은 적이 있거나 상당기간 건축가로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들이 원하는 학생은 이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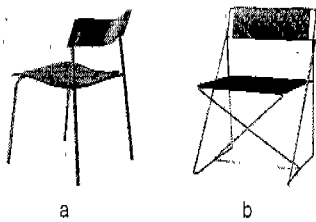


a b  
<그림 1>환경을 중요시하는 덴마크의 도시 계획

- a: Stroget,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자의 도로, 덴마크 정부는 1950년부터 꾸준히 Royale Academy Of fine Arts의 환경건축과와 함께 보행자의 도로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 b: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전거. 코펜하겐 시내에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의 모습이다. 여행자를 역시 쉽게 자전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 (3) 구조의 특징

가구의 구조가 그대로 가구의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알바 알토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외에도 그들의 국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상당한 배척심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성이 가구 디자인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의 외관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내기에 충분해야 한다.



a b  
<그림 2> 덴마크 가구 디자인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자의 예 (a,b)

- a: Campus, Peter Hiort-Lorenzen & Johannes Foersom, 1990
- b: X-line, Niles Jorgen Haugesen, 1977

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순수한 열정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교육과정은 약 5년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일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 할 학점제도 또한 없다. 이 학교에는 전공(major)은 없고 과(科, department)만 있으며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아 여러 과를 옮겨다닐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에 가장 큰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학교의 과는 총 11개이며 다음과 같다.

- Dept. 1. Town and landscape
- Dept. 2. Structure, town, and building
- Dept. 3. Structure and building-program method
- Dept. 4. Building culture, urban design, and restoration
- Dept. 5. Building, space, and structure
- Dept. 6. Building, space, and form
- Dept. 7. Building, space, and object
- Dept. 8. Building, materiality, and information
- Dept. 9. Building, technology, and resources
- Dept. 10. Building and architectural detailing
- Dept. 11. Design<sup>2)</sup>

1년 과정은 2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0달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년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이 디자인의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가구를 접근하는 방법도 제품 디자인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건축물 혹은 공간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라는 개념이다. 두 번째 단계는 3년 과정으로 free studies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원하는 주제를 정하여 학습하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3달 동안에 Final project를 진행한 후 과정을 통과<sup>3)</sup>하여야 한다. Final project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단 진행 계획서를 자신이 원하는 논문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을 검토한 교수가 자신의 연구 분야와 일맥상통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학생이 제출한 진행 계획서가 자신의 연구 분야와 다를 경우 교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Final project는 교수와 1:1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동료 학생들의 비평과 견해 역시 지도교수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Final project와 관련된 이론강좌, 세미나, workshop등을 지원한다. Final Project는 국내외의 많은 인사

2)Royaume Academy, school of architecture 브로슈어 중 The course of study 에서 인용  
3)덴마크 왕립대학의 Final project의 평가는 오직 통과(pass)와 실패(fail)로만 이루어진다.

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가받게 되며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학생에게는 건축가로서의 학위<sup>4)</sup>가 주어진다. 더불어 같은 시기에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동료 학생의 final project를 평가하는 보고서<sup>5)</sup>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발휘되는 비평능력 역시 학생에게 학위를 부여할 때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 3.2. 덴마크 디자인 학교(Denmark Design School)

1875년에 설립되어 지난해 125주년을 맞이한 덴마크 디자인 학교는 덴마크 왕립학교와 더불어 덴마크의 대표적인 디자인 교육기관이다. 단지 덴마크 왕립학교가 건축에 디자인 교육의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덴마크 디자인 학교는 산업디자인에 교육의 기본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2001년을 맞이하여 덴마크 디자인 학교는 부분적으로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점과 학위제도의 시행이 바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인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용과 타국의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다.

그들의 교육 이념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교수 지도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존중해주고 오직 고정관념을 깨어 가는 사람만이 바람직한 교육 전통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덴마크 디자인의 가장 큰 화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가치가 디자인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지침에 따라 교육자들은 디자이너에 의해 창조된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학적 관점에서나 기능적 관점에서 모두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과과정은 5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은 담당 교수와 상의 한 뒤 스스로 자신에 맞는 커리큘럼을 정한다.<sup>7)</sup> 주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편성된 1학년 과정(Level 1)에서는 전공의 구분 없이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 기간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작업은 우리 나라의 순수 미술 학과에서 하는 작업과 흡사하다. 학생들은 설치 미술과도 같은 상당히 실험적인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4)덴마크 왕립대학에서 Final project를 통과하게 되면 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5)타학생의 프리젠테이션을 비평하는 작업은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동료 학우들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뒤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년에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6)덴마크 디자인 학교 브로슈어 중 p.4 The Art of possible에서 인용  
7)덴마크 디자인 학교 브로슈어 중 p.44 A Community with a purpose에서 인용

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학생이 원한다면 1년 후 4개 단과 대학 즉,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무대 디자인), 디자인 이론과 연구 과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1학년 과정에 좀더 머물고 싶은 학생은 2학년 과정으로 진학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과과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양한 재료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의 많은 미술대학들이 재료를 중심으로 전공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이곳에서는 나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실기실이 전공에 상관없이 개방되고 있다.

그리고 2학년 과정부터 3년에 걸쳐 6학기(6sem)로 되어있는 Institute study과정(Level 2)에서는 산학 협동을 기본으로 양산을 전제로 한 작업이 학생 개인 혹은 그룹단위로 진행된다. 이는 1학년 과정에서의 실험적인 작업과 함께 병행된다. 학생들은 상당히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는 두 과정을 병행하여 가구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이며 동시에 창조적인 작업이므로 디자이너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신선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때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작업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다.

한편, 이론 수업으로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미학, 인류학 등을 다뤄 디자인이 문화를 반영하는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공에 상관없이 수업 내용 및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즉, 인간과 정체성(Man and Identity), 인간과 오브제(Man and Object), 인간과 사회(Man and Society)로 나누어 진행된다. Final project가 진행되는 마지막 학기는 1년 과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케줄을 짜서 독자적인 작업으로 진행된다. 논문, 디자인 개발, 전시로 이루어지는 1년간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자문위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sup>8)</sup>

덴마크 디자인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산학 협동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국내의 대학들도 도 인식하고 있어 이미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젝트가 학기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곳 덴마크에서는 한국에 비해 일단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산학협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덴마크 가구 회사들은 사내에 디자이너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상임과 동시에 단기간에 여러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때문에 회사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학생들 중에서 적합한 디자이너를 뽑는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에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경험으로 인하여 이미 다양한 회사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산학협동을 위해 회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년에도 수십 회에 이르는 각종 공모전의 활성화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가구 및 조명 회사들은 디자인 컨셉과 상금을 걸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p>9)</sup> 공모전은 일반인과 학생 구분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때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경쟁을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명의 어린 학생이 선배들을 재치고 우승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공모전에서 우승한 학생은 즉시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행운을 얻게 되고 동시에 추후 다른 회사와 접촉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적 바탕은 학생들이 졸업 후 스스로 사무실을 내는데도 상당한 자신감을 준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디자인 스튜디오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으나 덴마크에서는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한다. 학창시절 쌓아놓은 여러 회사들과의 네트워크와 공평하게 주어지는 공모전의 기회는 이곳에서도 경쟁이 심한 디자이너 사회로 홀로 진출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

### 3.3. Denmark International Study Program (DiS)

영어권 외국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 시설로서 코펜하겐 대학(Copenhagen University)의 부설기관이다. 1959년 처음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18,000명의 학생들이 DiS를 거쳐갔다. 덴마크 디자인의 교육 철학과 미국식 교육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학생들에게 유럽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매력을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하고 나아가 미국 학교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 교직원원은 덴마크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이념은 여타의 덴마크 디자인 대학과 유사하지만 학점을 이수하여 학생들의 모교에 가서 동일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정을 수료하면 코펜하겐대학으로부터 수료증이 수여된다. 학기는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한학기만 들을 수도 있고 두 학기를 연장하여 들을 수도 있다. 일정은 미국의 시메스터(semester)제도와 거의 같다. 즉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을 학기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봄 학기,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여름학기가 그것이다. 가구 디자인 과정은 그 동안 여름학기의 교과과정 중 건축과 디자인(Architecture and design)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왔으나 1998년 이후 가구 디자인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개설하여 학기 당 약 40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DiS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덴마크에서 덴마크 디자인을 배우는 과

9) 덴마크의 조명회사인 르 클린트(Le Klint)사와 루이슨 폴슨(Louis Poulsen)사는 해마다 공모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며 더구나 올해에는 한국의 유학생이 르 클린트 공모전에서 우승하기도 하였다.

8) 덴마크 디자인 학교 Studies Guide,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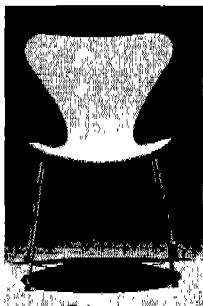
정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정체성을 찾게 하는데 있다.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이다. 덴마크의 교수진들이 덴마크 디자인의 배경인 문화, 역사, 철학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동시에 교수진 역시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 역시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과 섞여서 작업을 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독려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디자이너의 필수조건으로서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개방된 사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DiS에서 개설하고 있는 가구 디자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총 8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 수업, Design studio and workshop, Visual journal, Field studies, Study tour to Western Denmark(2박 3일), Study tour to Stockholm and Helsinki(7박 8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학생들의 모교에서 학점을 인정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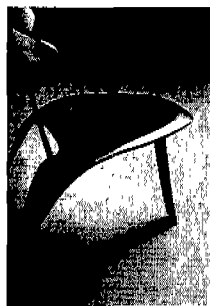
각 과목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esign studio and workshop (6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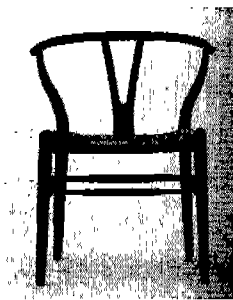
이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가구 디자인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실기수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주제를 정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후 모델링 과정을 거쳐 1:1로 완성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평가받는다. 학생들의 작업을 교내나 혹은 외부 전시장을 빌어 전시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때 전



<그림 4> 7chair,  
Arne Jacobsen, 1955



<그림 5> pko,  
Poul Kjaerholm, 1952



<그림 6> Y chair,  
Hans J. Wegner, 1950

시 디자인은 학생들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된다. 이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과제는 유명 디자이너의 의자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실측을 한 후 1:1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이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의자인 아네 야콥슨(Arne Jacobsen, 1902-1971)의 7 chair, 폴 켈홀름(Poul Kjaerholm, 1929-1980)의 PK0, 한스 위너(Hans J. Wegner, 1914- )의 chinese chair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구조를 파악한 후 손으로 도면을 그려 완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심도 있게 그 의자를 이해하게 된다. 1:1 도면 그리기 과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과제는 선택한 의자의 이미지를 그래픽화하여 우편엽서 정도의 크기로 의자 전시를 위한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를 허용치 않는 도면으로 의자를 표현하는 과제와 함께 주어지는 이 작은 과제의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의자를 형태가 아닌 이미지로만 표현한다는 점이다.

(2) 이론 수업 (3학점)

이론 수업은 주로 학기의 초반부에 많이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문화, 역사를 포함하여 20세기 덴마크, 북유럽의 가구 역사, 디자인 전개 과정 및 양산을 위한 형태의 전개,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을 다룬다. 이론 수업은 실기 수업 및 여타 다른 과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단지 과목이 분리되어있을 뿐 사실상 같은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 시간에 덴마크 가구 디자인 역사를 배웠다면 실기수업시간에 그 가구 중 하나를 분석하여 도면을 그리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지고 현장실습 시간에는 그 가구들이 전시되어있는 박물관을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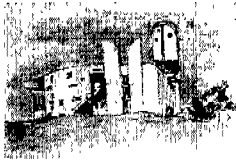
(3) Visual journal (2학점)

위에서 가구도면을 1:1로 그리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한 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덴마크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그리는 도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단 테크니컬 드로잉(technical drawing) 뿐만 아니라 스케치도 마찬가지다. DiS학생들은 항상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연필, 잉크, 색연필 등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짧은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훈련받는다. 사진기를 이용하는 대신 스케치북을 펼쳐드는 과정을 학습하는 동안 학생들은 사진기가 담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손으로 표현하면서 얻게 된다. 물론 그림과 함께 첨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몇 자 적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스케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것이다.

위의 세 과정 외에 색채학 (2학점)<sup>11)</sup>, Design in Denmark(2점)<sup>12)</sup>라는 이론 위주의 선택과목이 있고 DiS가 교과과정의 가

11) 색채학 수업은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닌 주로 독특한 색채로 마감된 건축물을 방문하여 수채화를 이용해 분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2) 덴마크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 수업이다. 덴마크의 열

10) DiS, Scandinavian furniture design program syllabi, summer 2001, p.3



<그림 7> 학생 작업, Free hand drawing

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Field study와 Study tour가 있다. Field study는 주로 덴마크 내의 가구 공장, 디자이너 작업실, 가구 디자인 회사, 전시장,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과정이며 study tour로는 Western Denmark tour, Finland, Sweden tour등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학점이 없다. Study tour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과정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가보게 될 건축물이나 건축물내의 가구 등의 리스트를 학생들에게 열람하여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전조사를 하도록 한 후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이나 가구를 담당할 학생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온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수는 전체 학생의 보고서를 모아 학생 수 만큼 복사하여 나눠준다. 이때 학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 또한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깔끔한 타이핑에 자신의 스케치북 속의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리한 스캔 받은 사진으로 구성된 보고서도 있지만 대개의 학생들은 자신의 스케치북 속의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리한 후 제출한다.

#### 4. 결론

덴마크의 가구 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네 야콥슨(Arne Jacobsen, 1902-1971)의 7 chair(모델 No. 3107)는 1955년에 처음 양산되기 시작한 후 오늘날까지도 그 생산을 멈추지 않는 의자이다. 최고 하루에 1,200개, 연간 200,000개의 7 chair가 양산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가구 디자인 교육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였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요소의 도입을 돕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덴마크의 교과과정에서 나타난 바처럼 교육의 배경에는 또 다시 그들의 문화와 역사, 철학, 사회적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적용하는 차원이 아닌 응용 개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향후 국내 가구 디자인 관련학과의 교과목과 교과과정을 분석해보는 작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한국 실정에 맞는 교과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본 연구에 이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자는 이상의 덴마크의 가구 디자인 교육의 특징들을 연구한 결과 타산지석의 측면에서 한국 디자인 교육과정의 주요 지침으로 삼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이다. 이는 전공을 불문한 모든 디자인 교육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오히려 국가의 정체성은 더욱 가치를 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단지 전통적인 형태의 특징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 21세기에 적합한 한국적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학문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서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 분야를 망라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인생의 경험이 교육을 받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되는데 휴학을 하고 여행을 한다던가 일을 한다던

<표 1> 각 교육기관의 특성 비교

	덴마크 왕립 대학	덴마크 디자인 학교	Denmark International study program
특성	덴마크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덴마크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건축과 내에서 가구 디자인을 다루고 있으며 졸업하면 건축학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위가 주어진다.	가구 및 제품디자인이 특성화되어 있는 디자인 대학으로서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식 교육제도의 일부를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덴마크 교수진에 의해 교육되고 있는 위탁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성적은 평점으로 환산되어 학점 교류를 인정하고 있는 학생의 모교에서 인정받는다. 예) special studies: B (9 credits)
입학조건	덴마크 국가고시를 통과하거나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에 의한 면접을 통과하면 입학할 수 있다. 이때 지원자의 나이와 경력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져 적당한 사회경험과 건축을 공부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24세 전후의 학생이 입학에 유리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실기고사는 대개 3-4일에 거쳐 실시되며 시험의 주제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drawing technique은 당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는 전세계의 디자인 관련 대학 재학생이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로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학생들 중 모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학생들이 지원한다.
교육기간	공식적인 교육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복, 가을, 여름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구 디자인 과정은 여름학기에만 개설되어 있고 8주 과정이 있다.	
교과과정	1년: 기초과정 2년: 건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배우는 과정 3년: Free studies	level 1(1년 과정): 기초과정 level 2(3년 과정): Institute study level 3(1년 과정): Final project	Design studio & workshop 이론수업 색채학 Design in Denmark Visual journal Field studies Study tours
졸업요건	Free studies과정을 통한 final project의 presentation을 통과하여야 한다.	level 3과정을 통한 final project를 통과하여야 한다.	총 9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전과정이 D이상인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차 디자인과 색채 계획, 가전 제품, 실버 웨어 등을 폭넓게 다루며 제품을 분석한 보고서와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학기말 시험에 의해 학점이 주어진다.

가 하는 일련의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시 지옥을 거쳐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뒤돌아볼 새 없이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디자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하나의 요소임에 분명하다. 학창시절은 다양한 체험과 실수가 용납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키워주는 교과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수에게 의지하는 구조의 디자인 교육 과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디자이너로 성장하게 되며 같은 교수에게 수학한 학생들의 작품이 서로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교수의 작품 성향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보다 더 낫은 디자이너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 디자인 발전을 위해 지향하여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출판사, 1990
2. 김민수, 21세기 한국 디자인의 미래, 추계학술세미나, 실내 디자인학회, 1999
3. Bard Henriksen, Arne Jacobsen and his laminated chairs, Scandinavia journal of design history, September, 1997
4. Kirstin Norregaard Pedersen, Neo-Empire: another Classicism in Danish furniture, Scandinavia journal of design history, September, 1997
5. Kevin Davies, Twenties Century Danish furniture design and the English Vernacular tradition, Scandinavia journal of design history, September, 1997
6. Merete Christensen, Cultural values and tangible forms, Scandinavia journal of design history, September, 1997
7. <http://www.scandinaviandesign.com>
8. <http://www.ddc.dk>
9. <http://konstfack.se>
10. <http://www.uiah.fi>

#### Interviewees

1. Becker, Carsten, professor at Denmark design school
2. Hvass, Niels, professor at Denmark design school
3. Hansen, Roald Steen, professor at Denmark design school
4. Skoven, Erik, Director of architecture & design program at DiS
5. Christophersen, Susanne, professor at DiS
6. Uhrskov, Anders, Director of DiS
7. Hansen, Jogen Peter, professor at Royale Danish Academy of fine arts
8. Gehl, Jan, professor at Royale Danish Academy of fine arts
9. Jensen, Poul, Fritz Hansen A/S 부사장
10. 하지훈, Denmark design school 가구 디자인 학과 재학

<접수 : 2000. 11. 7>